하루노쓰지 유적

하루노쓰지는 기원전 200 년경부터 350 년경까지 이키국의 왕도였습니다. 이곳은 한반도, 중국, 일본 본토에서 온 상인들과 여행자들을 통해 물건과 정보를 교환하는 상업 중심지로 번창했습니다.

하루노쓰지는 섬 내에서 가장 넓은 평야에 지어졌으며, 겨울에는 강풍에 노출되는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하타호코 강에 접한 커다란 선착장은 마을의 현관 역할을 했으며, 대형 선박이 정박하는 만에서 작은 배를 타고 상류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왕도는 전략적으로 선택된 곳이었으며, 주민이었던 상인들과 농민들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곳에 모여 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착장에서 하루노쓰지에 가까이 다가가면, 우선 도읍을 둘러싼 이중 혹은 삼중의 해자를 지나가게 됩니다. 얕은 구덩이 위에 세워진 주거지, 고상식 창고, 망루 등을 지나 마을 중심을 향해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신전이 있었으며, 이곳은 점술가가 하늘의 신들과 만나 미래를 예언하는 곳이었습니다. 신전의 문은 신성한 세계와 세속 세계의 경계를 나타내며, 신의 사자로 여겨지는 새의 장식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이 신도(神道) 도리이(성역의 경계선에 세워진 문의 일종)의 기원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루노쓰지는 무역로가 다른 곳으로 변경되고 이키국이 일본 본토 세력에 흡수된 결과 4 세기 중반에 쇠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적에서는 약 300 채의 건축물 토대가 발견되었으며, 1 세기부터 3 세기경의 건물 17 채가 현재 복원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토기, 중국의 화폐, 교역에 사용된 구리 추, 사람의 얼굴을 본떠 만든 돌 등의 출토품은 인접한 이키코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